

현안과제연구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연구수행: 김종화 (농촌농업연구부)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연구수행: 김종화 (농촌농업연구부)

목 차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II. 선행연구 검토

III. 충남 수산업의 일반현황

1. 충남 수산업의 개요
2. 충남 수산물 생산현황
3. 충남의 어업권

IV. 주요 품종 영향분석

1. 주요 품종의 교역 현황
2. 한-중 FTA에 의한 영향분석

V. 충남 수산업의 대응방안

1. 포괄적인 대응방안
2. 주요 품종별 대응방안

VI. 맺음말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3년 9월 한·중 FTA 제7차 협상 개최되면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되고, 2단계 협상이 개시될 기반이 마련되었음. 2단계 협상은 본격적인 품목협상으로,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특히, 농수산업은 이미 국내시장에서 중국 농수산물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또, 최근에는 중국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품질이 향상되면서, 기존 저가·저질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음.
- 수산업에 있어서는 서해를 마주보고 있어 생산되는 품종이 비슷하고, 뛰어난 수산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리고 이미 국내 시장에서 패류를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어업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감품목을 설정하여, 체결이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도 지역특화 수산물을 주요품종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관계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를 주요품종으로 선정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충남도의 요청을 반영하여 6개 품종(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I. 선행연구 검토

- 타 국가와의 FTA 체결은 해당국가의 경제·산업기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어 FTA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
- 특히, 한-미, 한-EU, 한-중 등 거대 경제세력과의 FTA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정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각 산업별 체결 시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한-EU, 한-중 FTA에 따른 영향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농림어업분야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한-EU FTA는 돼지고기가 최대 피해예상산업이었음.
 - 그러나 한-중 FTA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이미 저가의 수산물을 대량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철폐 이후 국내 수산물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어 생산되는 품종이 비슷하고, 뛰어난 수산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의 자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중요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산분야 한-중 FTA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1차협상이 타결되고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면서, 수산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현용·송경은(2008)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부문 미칠 영향을 추정하고 협상방안과 어업인 지원대책을 제시하였음.
 - 송경은·김우경·김현용(2010)은 한-중 FTA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입과 국내 가격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음.
 - 최해범·신성식(2012)는 한-중 FTA 체결 시 관세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기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다각도로 정리하고 체계화 하였음.
 - 이상숙(2012)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세 철폐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물 수입확대 효과를 추정함.
-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한-중 FTA가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관세 철폐에 따른 실익을 계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연

구는 특정품종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국가단위의 영향 및 실익을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지역특화 수산물인 6개 품종(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에 따른 충남도의 영향을 분석함.

III. 충남 수산업의 일반현황

1. 충남 수산업의 개요¹⁾

- 충남의 어가인구는 9,538가구 22,270명으로 도내 인구(2,028,777명)의 1.1%, 전국 어가인구 153,106명의 14.5%를 차지하고 있음(2012년 기준). 이는 전남과 경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치임.
- 리아스식 해안선(1,284km)과 넓은 갯벌(358.8km²), 많은 도서가 있는 것 특징적이며,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연안을 접하고 있음.
- 충남에는 112천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생산량 3,183천톤의 약 3.5%에 해당하며 전국 6위를 점하고 있음(2012년 기준).

2. 충남 수산물 생산현황

- 충남의 수산물은 2012년 기준으로 해수면 생산량 108,416톤, 생산금액 470,164백만원이며, 내수면 생산량은 3,282톤, 생산금액 19,493백만원임.

[표] 충남의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계		131,479	471,264	118,282	485,560	111,698	470,164
해면	소 계	128,052	451,737	118,282	485,560	108,416	450,671
	어 류	47,455	144,378	43,521	144,362	38,018	142,594
	패 류	38,223	89,440	32,991	85,152	23,266	66,991
	갑 각 류	18,074	146,370	15,157	152,219	15,682	154,726
	연 체 동 물	4,171	44,476	5,463	57,477	4,698	59,104
	해 조 류	19,032	13,998	16,414	11,450	26,279	21,778
	기타 수산동물	1,097	13,075	831	14,264	473	5,478
내수면(어류,패류 등)		3,427	19,527	3,905	20,636	3,282	19,493

□ 품종별(어류) 생산 현황

- 충남의 어류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38,017톤, 생산액은 142,593백만원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어류 생산량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생산금액은 보합상태임.
- 주요 생선품종은 멸치, 조피볼락, 넙치류, 대구, 아귀류, 까나리, 홍어류 및 노래미류 등이 있음.

1) 국가통계포털, 수산정보포털에서 참고하여 작성

[표] 충남의 어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계	47,455	144,378	43,521	144,362	38,018	142,594
멸치	19,372	26,271	19,671	29,737	18,213	38,301
넙치류	3,043	31,090	2,059	23,296	1,809	19,833
조피볼락	1,957	21,003	1,964	20,234	2,243	20,090
홍어류	3,285	14,307	2,129	10,223	1,288	7,053
가자미류	1,573	9,234	1,378	9,401	973	7,321
대구	1,044	4,682	3,317	9,261	3,831	12,191
노래미류	696	5,471	743	5,109	1,129	6,750
숭어류	579	3,577	739	4,179	524	3,517
아귀류	1,050	3,394	1,727	4,123	1,337	2,764
참돔	273	2,683	286	3,480	378	4,178
참조기	14	79	518	3,476	180	989
꼼치류	1,408	3,615	1,023	3,007	605	1,776
붕장어	392	3,556	300	2,921	478	4,989
농어류	113	1,450	152	1,857	54	675
전어	12	52	160	1,412	66	445
까나리	10,166	4,066	4,255	1,364	1,830	686
병어류	131	669	184	1,271	203	1,296
양태류	330	1,023	333	976	357	1,148
삼세기	263	755	222	807	163	427
망둑어류	171	499	232	655	131	380
갈치	105	431	135	595	191	973
가오리류	2	30	143	490	13	72
서대류	64	355	87	478	148	592
삼치류	134	628	89	412	106	537
복어류	115	689	49	368	96	687
보구치	14	33	94	239	67	208
감성돔	11	143	17	238	10	173
참홍어	40	389	28	237	39	345
돌돔	47	789	15	197	12	227
쥐치류	14	145	10	151	13	132
부세	14	81	13	95	24	108
반지	62	122	42	65	35	68
상어류	2	50	1	38	9	67
고등어	179	415	9	36	34	77
기타돔류	2	51	1	34	10	101
기타조기류	0	6	3	20	63	132
민어	0	11	0	18	31	227
성대류	1	4	7	14	16	34
방어류	0	9	0	3	0	3
갯장어	0	0	0	1	0	1
강달이류	2	4	0	0	0	0
기타어류	775	2,517	1,386	3,844	1,308	3,020
소량어류	0	0	0	0	1	1

※ 소량어류 : 옥돔, 꽁치, 학공치, 능성어, 기타볼락류, 눈볼대, 준치, 기타다랑어류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품종별(패류) 생산 현황

- 충남의 패류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23,266톤이며, 생산금액은 66,991백만원임.
- 주요 생산품종은 바지락, 굴, 키조개, 고둥류임.

[표] 충남의 패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계	38,223	89,440	32,991	85,152	23,266	66,991
바 지 락	12,921	28,027	10,235	26,513	8,730	25,111
키 조 개	7,279	23,625	4,370	17,976	3,577	17,243
굴 류	9,159	12,962	12,046	17,544	7,786	11,653
피 조 개	5,697	12,653	3,181	9,618	186	665
고 둥 류	1,724	7,123	1,667	7,907	1,720	7,992
전 복 류	37	1,755	32	1,628	31	1,424
홍 합 류	650	1,253	630	1,415	590	1,333
꼬 막 류	155	354	170	892	85	289
개 조 개	34	140	89	420	86	417
가 무 락	55	250	72	318	48	272
맛 류	346	854	119	302	20	95
개량조개류	38	46	301	289	328	248
기타패류	90	213	55	169	51	106
백 합 류	3	23	14	123	12	105
가리비류	1	10	1	17	3	27
새 조 개	7	92	1	11	0	1
동 죽	13	15	8	9	13	10
소 라	14	45	0	1	0	0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품종별(갑각류) 생산 현황

- 충남의 갑각류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15,682톤이며, 생산금액은 154,726백만원임.
- 주요 생산품종은 꽃게와 새우류가 많음.

[표] 충남의 갑각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18,074	146,370	15,157	152,219	15,682	154,726
꽃 게	13,718	115,862	11,318	126,538	11,242	115,497
흰다리새우	472	7,012	629	9,773	860	15,261
민 꽃 게	1,504	6,504	1,695	6,777	1,291	5,877
꽃 새 우	799	4,302	398	3,014	741	3,477
기타새우류	949	4,699	542	2,631	605	3,563
대 하	174	6,056	29	1,158	255	8,782
젓새우류	65	205	309	1,156	446	1,353
기타갑각류	208	901	151	753	181	579
중 하	51	415	30	268	27	232
기타게류	134	414	56	151	34	105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품종별(연체동물) 생산 현황

- 충남의 연체동물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4,698톤이며, 생산금액은 59,104백만원임.
- 주요 생산품종은 갯벌이 넓게 분포한 지역적 특성에 의해 주꾸미의 생산량이 많음.

[표] 충남의 연체동물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4,171	44,476	5,463	57,477	4,698	59,104
주꾸미	1,431	25,040	1,707	26,199	2,411	39,434
살오징어	867	3,678	2,192	14,321	695	4,582
낙지류	447	8,239	411	8,424	357	6,728
갑오징어류	981	4,953	755	6,279	760	5,856
꿀뚜기류	440	2,496	398	2,244	473	2,482
문어류	5	70	0	9	1	14
한치류	0	0	0	1	1	8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품종별(해조류) 생산 현황

- 충남의 해조류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26,279톤이며, 생산금액은 21,778백만원임.
- 주요 생산품종은 김류, 미역류 및 다시마류 등임.

[표] 충남의 해조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19,032	13,998	16,414	11,450	26,279	21,778
김 류	14,848	11,240	10,334	8,864	20,178	18,013
미 역 류	3,115	1,639	5,190	1,596	3,788	2,213
기타해조류	83	621	75	606	10	56
파 래 류	0	0	32	189	67	348
다시마류	981	491	760	144	2,218	1,109
툇	4	6	17	37	17	36
모자반류	1	1	6	13	0	0
꼬시래기류	0	0	0	1	1	2
청 각	0	0	0	0	0	1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품종별(기타) 생산 현황

- 충남의 기타 품종의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473톤이며, 생산금액은 5,478백만원임.
- 충남에서 생산되는 기타 수산동물로는 해삼, 성게 등이 있음.

[표] 충남의 기타수산동물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1,097	13,075	831	14,264	473	5,478
해 삼	1,030	12,696	776	13,775	420	5,245
성 게 류	4	9	21	44	37	79
기타 수산동물류	63	370	34	445	16	154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내수면 생산 현황

- 충남의 내수면 생산량은 2012년 기준으로 3,281톤이며, 생산금액은 19,493백만원임.
- 주요 생산품종은 큰논우렁이, 메기 등임.

[표] 충남의 내수면어종 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명	2010년		2011년		2012년	
	생 산 량	생 산 액	생 산 량	생 산 액	생 산 량	생 산 액
계	3,427	19,527	3,905	20,636	3,282	19,493
뱀 장 어	218	5,328	172	5,529	127	5,132
메 기	693	1,987	1,004	3,456	675	3,259
큰논우렁이	843	2,125	1,253	3,135	1,206	2,959
붕 어 류	707	3,074	480	1,793	428	2,082
송 어 류	55	399	77	754	71	656
자 라	12	661	12	751	17	753
가 물 치	61	487	70	616	54	481
잉 어	306	798	285	612	225	476
항 어	107	425	131	596	122	650
기타갑각류	3	120	11	451	-	-
다슬기류	67	808	30	442	15	210
큰입우렁(베스)	22	93	89	389	47	208
동자개류	19	196	29	357	31	350
농 어 류	26	245	28	265	24	257
틸라피아(민물돔)	56	303	41	247	34	205
게 류	15	706	7	203	18	704
기타어류	90	476	71	176	52	123
황 복	4	259	1	175	1	64
블 루 길	27	113	36	162	25	110
새 우 류	39	412	16	133	17	209
미꾸라지류	30	228	11	92	23	254
쏘 가 리	6	190	2	83	2	49
송 어 류	7	49	10	58	10	53
피 라 미	12	14	36	54	40	29
철갑상어류	0	0	1	53	7	120
금 붕 어	0	16	0	30	1	38
비단잉어	0	7	0	18	1	37
빙 어	2	8	2	6	9	26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3. 충남의 어업권

- 충남의 어선수는 2012년말 기준으로 6,076척이며, 전남과 경남을 이어 3번째로 많음.
- 충남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이 1,791척으로 가장 많고, 서천군 1,467척, 보령시 1,279척임.

[표] 충남 시군별 어선수

(단위 : 척)

구분	계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어선수	6,076	1,279	98	583	25	587	7	26	1,467	1	158	54	1,791

자료: 충남도청 업무자료

- 충남의 어업권수는 총 1,119건이고, 면적은 135,554km²임.
- 마을·정치어업의 건수는 298건이고, 양식어업은 693건, 내수면 어업은 128건으로 충남은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세력이 강한 지역임.

[표] 충남의 어업권(2011년)

(단위 : 건, m²)

시군별	합계		마을·정치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119	135,554,458	298	50,222,176	693	84,445,533	128	886,749
보령시	165	27,241,232	90	19,676,000	68	7,555,200	7	10,032
서산시	132	1,509	7	176	125	1,333	0	0
논산시	41	845,000	0	0	0	0	41	845,000
서천군	111	47,120,000	52	11,270,000	59	35,850,000	0	0
홍성군	32	4,549,000	6	1,250,000	26	3,299,000	0	0
태안군	520	55,051,717	113	17,390,000	406	37,630,000	1	31,717
당진군	118	746,000	30	636,000	9	110,000	79	0

자료: 2012년 충남통계연보

IV. 주요 품종 영향분석

1. 주요 품종의 교역현황

- ☐ 충남 주요 6개 품종의 국내비중 및 한-중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음.

[표] 주요 품종의 비중 및 교역현황(2012년)

품목명	전국 생산량(톤)	전국대비 충남 생산량 비중(%)	전국 생산액 (억원)	전국 대비 충남 생산액 비중 (%)	중국 수입액 (만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	자급률 (%)	관세율 (%)	대중국 수입증가율 (%)
바지락	25,028	34.88%	666	37.7%	4,143	98.9%	228.6%	20%	211.6%
굴	303,280	2.57%	1,991	59%	66	31.7%	97.7%	20%	206,389%
김	349,862	5.77%	2,775	68%	23	44.0%	95.7%	10~20%	-72.9%
해삼	1,935	21.71%	243	21.4%	1.6	31.7%	107.0%	20%	-99.0%
꽃게	26,861	41.85%	2,569	45.0%	3,419	76.6%	145.2%	20%	-8.8%
주꾸미	3,415	70.60%	542	72.7%	564	6.0%	811.8%	20%	-64.1%

주1: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2009년과 2012년을 비교한 수치임.

자료: 수산정보포탈, 어업생산동향조사 월보, 각년도

- ☐ 주요 품종 6개 중 굴과 김을 제외한 바지락, 해삼, 꽃게, 주꾸미가 전국대비 생산량과 생산액 비중이 20%를 넘어, 충남도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주꾸미는 전국대비 비중이 50%가 넘는 초민감 품목임.
- ☐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 수산물의 수입비중을 보면, 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의 비중이 높음.
- 특히, 꽃게, 바지락은 수입 비중이 70%가 넘는 초민감 품목임.
- ☐ 6개 품종 전부가 자급률 100% 또는 그에 근사한 자급률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바지락, 주꾸미, 해삼, 꽃게는 자급률이 100%를 넘음.
 - 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 이미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자급률 측면에서는 6개 품종 모두 민감도가 높음.
- ☐ 관세율에 있어서는 현재 전 품종이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

폐에 의한 시장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입증가율이 높으면, 그에 따른 민감도도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바지락, 굴이 대중국 수입증가율 10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특히, 굴의 수입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최근 중국이 한국을 굴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대중국 수입증가율에서 바지락, 굴은 초민감 품목임.

2. 한-중 FTA에 의한 영향분석

- 한-중 FTA에 의한 영향분석을 위하여 TSI(무역특화지수)와 MCA(시장비교우위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교역품목이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 합계)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할 수 있음(문한필 외, 2011).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i : 교역품목
 j : 무역상대국
 X : 해당국의 수출액
 M : 해당국의 수입액

-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특정상품을 해당국가에서 수입 했을 때, 수출국가의 상품이 수입국가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수임(문한필 외, 2011).

$$\frac{X_j^i / TX_j^i}{X_i / TX_i}$$

X_j^i : j 시장의 해당국가로부터의 i 상품 수입액
 TX_j^i : j 시장의 i 상품 총 수입액
 X_i : j 시장의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액
 TX_i : j 시장의 총 수입액

[표] 주요 품종의 경쟁력 분석(2012년)

품목명	TSI(무역특화지수)			MCA(시장비교우위지수)	
	지수	수출입특화	경쟁력지표	지수	시장경쟁력
바지락	-1.00	완전수입특화	매우 약함	3.63	중국산 경쟁력 있음
굴	0.56	수출특화	매우 강함	1.16	중국산 경쟁력 있음
김	0.98	수출특화	매우 강함	1.62	중국산 경쟁력 있음
해삼	0.99	수출특화	매우 강함	0.05	중국산 경쟁력 없음
꽃게	-0.72	수입특화	매우 약함	2.81	중국산 경쟁력 있음
주꾸미	-0.98	수입특화	매우약함	0.22	중국산 경쟁력 없음

주1: TSI(무역특화지수)는 특정품목의 TSI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임. 0이면 수출입규모가 같으며, 1은 완전수출특화, -1은 완전수입특화임. 경쟁력지표는 $0 \leq TSI \leq 1$ 이면 경쟁력이 강하고, 특히 $0.5 \leq TSI \leq 1$ 이면 매우 강함. 반대로 $-1 \leq TSI \leq 0$ 이면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1 \leq TSI \leq -0.5$ 이면 매우 약함(전형진 외, 2011)

주2: MCA가 1보다 크면 중국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함.

- TSI(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한-중 FTA 체결 시 바지락, 꽃게, 주꾸미는 수입특화상품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굴, 김, 해삼은 수출특화상품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MCA(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산 바지락, 굴, 김, 꽃게는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해삼, 주꾸미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TSI와 MCA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바지락은 완전수입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종임.
 - 굴과 김은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함. 그러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어, 양국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품종임.
 - 해삼은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종임.
 - 꽃게는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종임.
 - 주꾸미는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편이어서, 한-중 FTA뿐만 아니라 국내산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V. 충남 수산업의 대응방안

1. 포괄적인 대응방안

- ☐ 한-중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 수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과 함께, 주요품종(민감품목)별 대응방안이 필요함.
- ☐ 먼저, 충남 수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을 살펴보면, 어업생산성 유지, 수산물 유통개선과 로컬푸드 실현, 대중국 수출 전략 수립, 어업인 생산자 조직 육성이 있음.

[어업생산성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향상]

- ☐ 어업자원 보호·회복을 위한 어업인의 자주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 유도
 - 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어가경영 개선 및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
- ☐ 전략품종에 대한 양식업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유지
- ☐ 바다목장·바다숲·종묘방류·인공어초 등을 통한 어업자원 증대
- ☐ 어업질서 확립·새로운 어장개발·적정어선세력 유지

[수산물 유통개선과 로컬푸드 실현]

- ☐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어촌계와 수산물 가공업체, 유통업체의 상생발전과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상공연계 전개 필요
 - 어촌계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주고, 지역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게는 원물수급이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
- ☐ 충남 수산물 광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
 - 주력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조직 육성과 지역브랜드화로 발전 도모
 - 대표 품종에 대한 품종별 어가생산조직의 체계 구축
 -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유통·공동 마케팅 전개
 -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 브랜드 개발

- 지역 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체계 구축
 - 지역 수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동해·남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져, 이를 대체할 서해안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
 - 수산물을 집적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 건립
 - 수산물 집적을 통한 상품 다양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종합 유통센터로 건립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가능
- ※ 현재 추진 중인 FPC 사업과 연계 필요(FPC와 산지위판장의 연계 필요)

[대중국 수출 전략 수립]

- 해삼, 굴, 김 등의 우리나라가 우세하거나, 경합이 예상되는 주요 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
- 대중국 수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중국 수출 어업인 조직 육성 및 교육
- 대중국 수출을 위한 기반제도 정비 및 비관세장벽(검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국 검역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품질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수산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수출 유통·물류망 구축 필요
- 중국 수요를 고려한 수산물 가공품 제조 및 수출
- 중국 현지에 맞는 마케팅전략 수립 필요

[어업인 생산자 조직 육성]

- 어촌계와 자율관리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 어촌계와 자율관리공동체의 조직의 구성원이 거의 일치함으로, 우수 어촌계(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두레기업으로의 육성 강구
 - 소득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 창출로 어촌의 사회적 경제 구축
- 대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인 생산자 조직 육성
 -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대상으로 어업인 생산자 조직 육성
 - 중국 수출을 위한 제반교육 및 제도적 지원 필요

2. 주요 품종별 대응방안

-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에서는 양국이 양허초안을 교환하여,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양허초안에서 한-중 FTA의 품목별 개방범위를 검토하게 되며,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일반품목에 대한 선정논의가 진행될 것임.
 - 초민감품목: 20년 이상 개방유보(관세철폐 유보)
 - 민감품목: 10~20년 내 개방(부분적 개방)
 - 일반품목: 10년 내 개방(전면적 개방)
- 충남 주요 품종의 개방범위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주요 품종 중, 바지락과 꽃게는 초민감품목, 굴, 김, 주꾸미는 최소한 민감품목, 해삼은 일반품목으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함.
 - 초민감 품목: 사실 상 관세철폐가 유보되고, 그 기한도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바지락과 꽃게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환경·저장환경·수출루트·판매망 확보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한-중간 경합이 예상되는 굴과 김은 중국산과의 상품차별화를 통한 내수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친 품종개량과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고급화를 실현해야 함.
 - 해삼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일반품목에 속하는 것이 유리함.
 - 주꾸미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간의 경쟁도 치열하여 타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감 품목: 10~20년동안 서서히 관세가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바지락과 꽃게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타품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굴과 김은 경합이 예상되므로, 내수증진과 수출루트를 다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해삼은 중국수출을 위한 생산능력 향상과 양식 및 가공기술 축적이 필요함.
 - 주꾸미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기타 외국산 간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육성 필요
 - 일반품목: 10년 내에 전면적으로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야 함.
 - 바지락과 꽃게의 경우, 품질우위를 확보하여 중국산과 시장에 경쟁 필요. 국내시장에서 공급량이 포화될 경우 생산량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타품종으로 전환 유도 필요
 - 굴과 김은 경합이 예상되나, 이미 국내산의 품질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내수공략과 수출루트 확대를 통한 소비물량 확대방안 마련 필요
 - 해삼은 본격적인 중국수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량 증대와 가공품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이 요구됨. 또한 검역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중국수출방안 마련 필요
 - 주꾸미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우위를 확보하고, 내수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

☐ 다음으로, 주요품종별 대응방안을 방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① 바지락

☐ 영향분석: 완전수입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종

☐ 대응방안

- 국내 수요촉진 방안 마련 및 어업의 소득 확대 노력 필요
 - 바지락 요리 개발, 바지락 가공품 개발, 바지락 먹기운동 등 바지락 수요촉진방안 마련 필요
 - 바지락 축제, 바지락 체험 등을 통한 어업의 소득 확대 필요
- 수출루트 다변화
 - 현재 일본위주의 수출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등으로 수출 확대 필요
 - 외국인 입맛에 맞는 바지락 요리 개발 필요

② 굴

☐ 영향분석: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하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어, 양국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품종

☐ 대응방안

- 국산 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국산 굴의 효능, 중국산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필요
- 국산 굴의 소비 촉진 및 대중화 방안 마련 필요
 - 국산 굴의 소비 촉진을 위한 음식개발, 가공품 개발 등
 -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갯벌참굴의 대중화를 통한 수요확대
- 국내산 굴의 품질향상 및 고급화 필요
 - 중국산과 비교하여 월등한 품질우위 확보 필요
 - 국산 굴의 고급화를 통한 어가소득 향상 방안 마련
 - 품질과 맛 향상을 통한 고급화 전략 수립 및 전개 필요
- 수출루트 다변화
 - 현재 일본위주의 수출에서 그 외 국가로의 수출망 확대

③ 김

☐ 영향분석: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하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어, 양국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품종

☐ 대응방안

- 원초의 품질 및 생산성 확보

- 원초 김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확보
- 김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브랜드화
 - 전국적인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서천김, 광천김의 원초 생산 및 수급, 가공, 판매·유통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형성
 - 현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강화하여 지역브랜드로써의 소비자 인식제고
- 조미김의 상품차별화 및 시장세분화
 - 다양한 조미김 상품을 개발하고,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 확보
 - 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계층이 소비하고 있으므로, 시장 소비계층을 세분화한 적재적소의 마케팅 전략 필요(예, 일본은 파래김 수출 등)
- 수출루트 다변화
 - 현재 국내산 김의 해외 인지도가 높으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으로의 수출확대 필요

④ 해삼

- 영향분석: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
- 대응방안
 - 중국 수출용 해삼 생산 및 가공
 -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삼 생산 및 가공품 생산
 - 체계적인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유지
 - 해삼양식기술 향상 및 양식섬 지정 등을 통한 생산성 유지
 - 종묘생산에서 채취까지 생산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중국 수출을 고려한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 중국 수출을 위한 어업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제도적 지원
 - 중국 현지실정에 맞는 마케팅 전개

⑤ 꽃게

- 영향분석: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임.
- 대응방안
 - 중국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체계 구축
 - 양국간의 금어기 설정 및 준수 필요
 - 국제어업질서 유지
 - 현대화된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를 통한 위생 및 신선도 유지
 - 꽃게축제, 지역 꽃게브랜드 개발 등을 통한 충남산 꽃게 수요확대 필요

⑥ 주꾸미

- 영향분석: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종임.
- 대응방안
 - 국산 주꾸미의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렵고,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으나, 한-중FTA로 인한 저가 물량공세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주꾸미 어업인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물로서의 네임밸류 확대를 통한 지역브랜드화 구축 필요
 -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주꾸미의 소비자 이미지 제고
 - 주꾸미 생산이력제 등을 통한 안전성이 담보된 상품이미지 제고
 - 식품 안전성에서의 중국산과의 차별성 확대

VI.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주요 수산물(바지락, 굴, 김, 해삼, 꽃게, 주꾸미)의 영향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하여, TSI(무역특화지수)와 MCA(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한-중 FTA에 따른 영향여부를 분석하였음.
 - 바지락은 완전수입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종임.
 - 굴과 김은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함. 그러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어, 양국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품종임.
 - 해삼은 수출특화로 무역 경쟁력이 강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종임.
 - 꽃게는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품종임.
 - 주꾸미는 수입특화로 무역경쟁력이 약하나, 중국산 또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편이어서, 한-중 FTA뿐만 아니라 국내산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6개의 품종 중 해삼을 제외한 모든 품종이 불리 또는 경합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바지락, 꽃게는 그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해삼은 오히려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굴과 김은 국내시장에서 경합이 예상되나,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내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됨.
 - 굴은 일반 소비자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아니므로, 품질과 맛 향상을 통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계층이 소비하고 있으므로, 시장세분화를 통한 소비계층분류와 그에 따른 적절한 마케팅 전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주요 수산물에 대한 한-중 FTA의 영향여부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한-중 FTA의 1차 협상이 끝난 시점에서 그 영향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에 있음.

- 따라서 향후 2차 협상이 진행되고 품목별 협상내용이 나온 후, 본 연구보다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김현용·송경은(2008),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Ⅱ),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 문한필·최세균·정대회(201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경은·김우경·김현용(2010), 한·중 FTA의 수산업 영향 및 대책,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 이상숙(2012), 한·중 FTA 체결 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 최해범·신성식(2012),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고찰,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pp127-148.
- 충남도청, 충남통계연보, 2012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월보, 각 년도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